

폭력교육과 폭력사회

얼마전 새봄 신학기를 맞은 교실에서 한 학생이 거둬진 괴롭힘을 못견뎌 급우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열흘 전에는 심장병을 앓는 급우를 몇명이 지속적으로 폭행해 불구로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학교는 괴롭힘으로 인한 살인과 폭행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것인가.

억압·획일교육이 낳은 폭력학생

심장병 학생 폭행에 대해 담임교사는 그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살인자를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난다는 것인지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는 겁없는 아이들에게 처벌의 두려움을 일깨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하나같이 학교와 교사의 직무유기만을 질타했다.

그러나 나는 이른바 문제학생만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학교와 교사만을 나무랄 생각도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수가 서너배나 많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다. 교사가 크게 늘어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특히 전문가에 의한 상담체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학교만을 탓할 수도 없다.

따지고 보면 학생 폭력은 성인, 특히 부모와 교사의 폭력에서 배운 것이다. 사랑의 매란 폭력을 미화하는 거짓이다.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 그리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성인들의 폭력사회는 아이들의 교실에 그대로 투영된다. 아이들의 괴롭힘은 성인들이 아이들을 괴롭힌 결과다.

그러니까 체벌은 철저히 통제되는 관리교육의 상징일 뿐이다. 철저히 억압된 관리교육 그 자체가 문제다. 생활관리, 점수관리, 입시관리 탓에 아이들은 괴롭다.

오늘의 교육은 신이 맞지 않으면 발을 신에 맞추라고 명령하는 과거의 군대식 그대로다. 아이들은 부자유, 불신, 불안에 가득 차 있다. 일사불란한 획일적 관리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끝없이 위축되다 자주성을 잃고 서야 안심한다. 맞지 않는 아이들은 일탈하여 문제가 된다. 이런 억압교육을 불식하지 않고는 어떤 교육개혁도 있을 수 없다.

점수교육, 획일교육은 악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을 강요한다. 그런 경쟁사회에서는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자들

괴롭힐 때 뿐이다. 쌓인 욕구불만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폭발한다. 억압이 강할수록 음습하게 되어 표면화되지 않고 안에서 썩는다. 겉으로 아이들은 통제에 복종하지만 돌아서면 음험한 괴롭힘을 시작하고 폭력을 즐긴다. 성인의 관리나 개입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들은 도피하고 도착된 가치판단에 사로잡혀 폭력으로 질주한다.

폭력교육은 사회구조적 폭력의 결과다. 지난 30여년의 군사독재에 의한 정치폭력, 독점재벌에 의한 경제폭력, 권위주의 가부장제에 의한 사회폭력, 어용언론에 의한 문화폭력 등 모든 폭력의 결과지일 뿐이다.

특히 폭력으로 국가권력을 탈취한 '하나회' 야말로 폭력조직의 원형이 아닌가. 그 의리와 배신의 집단논리야말로 강패사회의 전형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근원주의에 빠져 현안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교육현장은 물론, 아이들이 둘러싼 교육환경에도 문제는 많다. 교사와 학교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학부모, 지역사회, 행정 및 사법기관과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긴요하다. 우리의 부모는 교육에 열심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지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식적, 행정적, 제도적인 차원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없이 괴롭힘이나 교내폭력을 막을 수가 없다.

아이들인권 부모·교사가 존중을

무엇보다도 먼저 괴롭힘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서,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괴롭히는 쪽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피해자 처지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은 선진국에서 괴롭힘을 범죄로 다루고 있고, 특히 그 보고제를 법제화하여 60% 정도의 감소를 기록한 노르웨이의 예를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개성을 존중하고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정신을 갖는 인간을 키우는 일을 포기한 출세지향의 수험지상주의 교육에서는 괴롭힘과 폭력이 끝날 수 없다.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교실폭력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시평



박 홍 규

영남대 교수·법학